

“  
우수하고 완벽한 단백질  
오리산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장기적  
안목의 방역대책 필요



## 오리소비 중심 수도권 시 철통방역 ‘고군분투’

안길호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관리팀장



10여년 전 80여 농가에 이르던 오리농가는 현재 12농가로 줄었지만 경기도는 오리산업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이 오리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오리산업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다.

별도의 예산을 들여 오리사육제한 농가를 추가하는 등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철통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경기도의 오리방역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안길호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관리팀장을 만나 경기도의 오리 방역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AI 확산 방지  
축산물 신뢰 높이기 위해

방역시설·장비 관리  
기본 방역수칙 준수

오리농가, 경기도 방역정책  
협조에 감사

**Q AI 관련 오리 방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매년 겨울철 반복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축종별 통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오리농가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오리는 대체적으로 축사 시설이 열악하고 AI에 감염되어도 조기에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바이러스 확산에 매우 취약한 축종입니다. 2000년대 초에는 AI 발생으로 급격히 오리고기 소비가 위축되어 식당뿐만 아니라 농장, 계열사까지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던 사례를 볼 때 농장에서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오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의사로서 경기도 방역을 위해 일해온 안길호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관리팀장은 오리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매년 경기도 오리 농가들과 경기도청에서 진행하는 오리데이 행사에도 빠진 적이 없는 그는 오리농가 하나하나에 대한 큰 애정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리농가들에게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오리사육제한을 할 거면 오리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뜻이 담겨있지만 보다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리고기가 얼마나 우수하고 완벽한 단백질인데 오리산업을 키우지는 못할망정 오리산업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농가들은 물론 산업계가 나서서 오리산업 육성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AI 방역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 안 팀장은 AI 확산 방지와 축산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리농가에서는 방역시설 및 장비에 대한 관리와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야하고 축사환경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해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리산업 총 생산액은 2011년 1조3,900억원을 돌파하였으나, AI 발생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며 2017년 8,700억원까지 축소되었고, 2018년 1조3,300억원까지 회복하였으나, 2020년 8,100억원까지 하락하는 등 시가 크게 발생할

때마다 크게 생산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가축 방역은 오리 산업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아직까지 일부 오리 사육농가에서 열악한 축사시설과 방역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 동절기 AI 발생 오리 농가의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모든 농장에서 방역시설 관리 미흡, 방역수칙 위반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오리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축사시설과 농장 종사자의 철저한 방역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도에서도 더 이상 오리농가에 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검사, 소독지원, 방역점검, 사육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오리농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해박한 지식으로 오리고기에 대한 효능을 올리는 안 팀장은 오리고기가 얼마나 훌륭한 단백질

질인지를 오리농가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리고기는 일반 육류와 달리 악알칼리성 식품으로 해독작용이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며, 과거에도 임금에게 진상하였다는 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 트렌드는 안전이 최우선이어서, 가축전염병 발생이나 축산물에 유해물질 검출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 AI 대유행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계란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를 보면, 가축전염병의 방역 실패는 곧 오리산업을 비롯한 국내 가금산업 전반에 큰 악영향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오리농가는 AI 방역상 취약 축종으로 타 축종 대비 방역정책 상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사육경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경기도 방역정책에 협조해주시고 동참해주신 경기도 오리농가에 감사 드리며,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